



미 증시, 엘런 재무장관 발언 소화하며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4일(화) 미국 증시는 화이자, CVS 헬스 등 제약업체들의 호실적에도, 엘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을 확산시킴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4일 다우 +0.1%, S&P500 -0.7%, 나스닥 -1.9%). 엘런 재무장관은 4일 미래경제서밋에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는 점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연준의 유동성 회수 불안감을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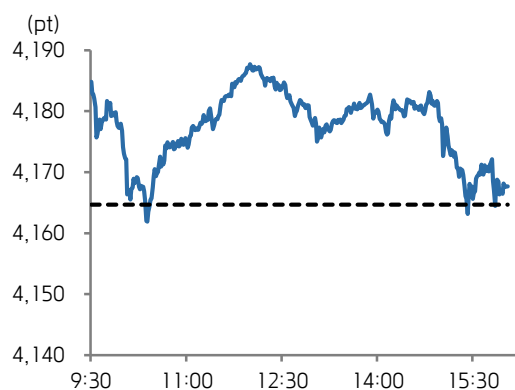
5일(수)에는 전거래일 성장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엘런 의장의 사태 진화 발언으로 상승 출발. 이후 장중에는 4월 ADP 민간고용 부진(74.2만, 예상 78.0만), 클라리다 부의장 등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 7월 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재부각, 7일(금) 고용지표 대기심리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 후반 상승폭을 반납(5일 다우 +0.3%, S&P500 +0.1%, 나스닥 -0.4%)

미국 증시 평가

엘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 이후 금융시장은 한 차례 요동을 쳤으나, 이후 이어진 또 다른 행사에서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태 진화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급등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현직 재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성장주 위주로 시장참여자들의 차익실현의 명분을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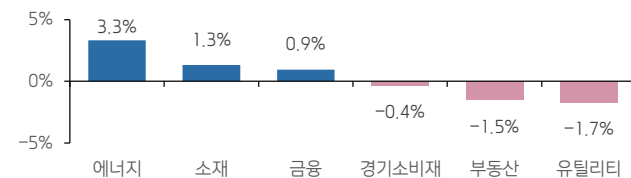
5일 발표된 ADP 민간고용지표는 컨센서스보다 부진하게 집계됐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7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상 신규고용 폭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 고용시장을 포함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될수록 시장에서는 조기 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을 주가에 반영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주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고밸류에이션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계 심리는 이어질 전망이다.

S&P500 일중 차트(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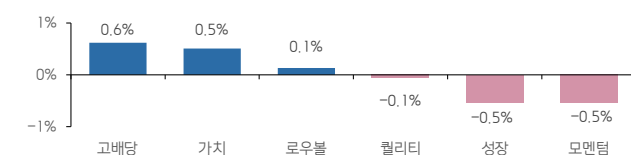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5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2.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약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공매도발 수급 불안에 따른 장중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이익 확정 욕구 상승과 경제 정상화 기대 가속화 사이에서의 경기 민감주 추가 상승 여부 3. 성장주, 특히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의 단기 주가 급락 심화에 따른 저점 매수세 유입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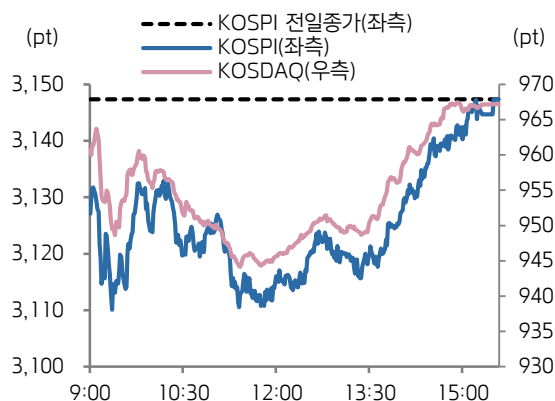
지난 4 일(화) 한국 증시는 공매도 발 수급 불안 지속으로 장중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이 심화됨에 따라, 한 때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2.2%대의 급락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들어 공매도 불안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코스피 +0.6%, 코스닥 +0.6%). 또한 경제 정상화 및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시현하며 지수 반등에 힘을 실어준 모습.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휴장기간 중 발생한 미국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강보합 흐름을 보일 전망. 지난 4 일 장 후반 공매도 불안감 과도 인식으로 반등을 연출하긴 했으나, 거래대금 부진 등 국내 증시가 여전히 호가가 얇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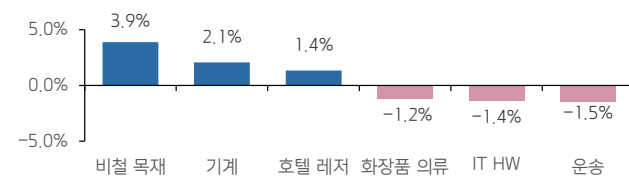
엘런 재무장관이 불을 지핀 중앙은행의 조기 정책 정상화 이슈는 경제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증시에 무조건 악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음. 이는 업종별 차별화를 유발하는 요인인 만큼, 경기민감주 VS 성장주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지 여부 또한 오늘의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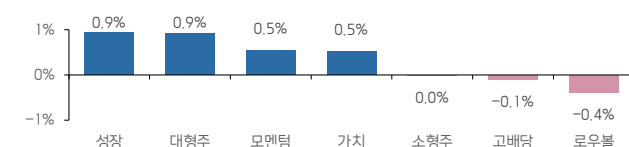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4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승,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